11강 영국 고딕

1교시 초기 영국 양식과 장식 양식

▲ 링컨 성당, 솔즈베리 성당, 웰스 성당

지난번에 캔터베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캔터베리는 고딕 성당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당이에요.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소설도 있듯이. 캔터베리에 나타난 내용은 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영국 특유의 장식화 경향, 다른 하나는 대륙에 있는 구조 합리주의 경향. 장식화 경향이 링컨으로 넘어가고, 구조 합리주의 경향은 솔즈베리로 넘어가. 각각 초기 영국 양식에서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 둘이 웰스와 웨스트민스터에서 두 경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영국 고딕의 완성점으로 나타나면서, 장식 양식의 전성기에 해당돼요.

링컨 성당을 먼저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졌다. 트랜셉트 세인트휴 성가대석, 네이브, 엔젤 성가대석. 이렇게 부분 별로 , 건물 내의 공간 구역별로 세 단계에 걸쳐서 초기 영국 양식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장식화 경향을 대표하는 예가, 예를 들어서 정면 사진인 [그림 888].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그림 891], 트랜셉트 천장 부분. 거기 볼트를 자세히 보면, 엇갈리고 있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이것이 프랑스의 4분 볼트 표준형이라면, 여기에서는 중앙점으로부터 양 쪽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어긋나고 있어. 마치 미끄러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대각선 방향 볼트 인데, 이것들은 무엇으로 부를지 명칭이 애매해. 그냥 사선 방향 볼트라는 애매한 말로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긋난 볼트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별명으로 크레이지 볼트라고 불러. 표준형으로부터 어긋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개수로 보면 6개로 볼 수도 있고, 10개까지도 볼 수도 있어. 이것을 하나로 볼지, 이것이 일직선은 아니고 약간 각도가 어긋나서 이것을 두 개의 볼트로 볼지 하나로 볼지에 따라서 그 볼트 하나를 구획하는 리브의 개수가 여섯 개도 되었다가 열 개도 되었다가. 링컨 성당은 리브를 이용해서 장식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에요.

그 다음에 네이브에서는 [그림 892]. 천장을 보면 리브 개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어느 것이 구조 역할을 하고 어느 것이 추가로 더해진 것인지 그 역할도 모호해지고, 개수도 늘어나고. 마치 헐크가 힘주면 가슴팍에 근육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육 가닥이나 부챗살처럼 장식화 돼 간단 얘기야. 그 다음에 크로싱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천장 [그림 893]을 보면 장식화 된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림 890]이나 [그림 892]에 나타났던 처리들은 선형 공간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이것을 정사각형의 공간에 저런 기법을 적용하면 [그림893]처럼 나온다는 얘기야. 모든 리브가 모이는 가운데 지점에 꽃장식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것이 리브 부재 중에 티어서런tierceron이는 것이 있어요. [그림 894]가 티어서런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그림이 정상적인 4분 볼트이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종방향, 횡방향으로 수직, 수평 방향으로 리브가 더 간 다음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중간 지점까지 이러한 사선 방향으로 뻗어있는 추가 리브를 티어서런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영국고딕에만 나타나는 것 아니면 대륙에서도 레요낭 양식에 가면 같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레요낭 양식이 영국에서 흘러들어갔느냐 아니면 대륙의 자발적인 양식인가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어쨌든 티어서런이라는 부재는 장식화 돼 가는 경향을 대표하는 부재이고. 이것이 영국에만 있는 리브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다발 기둥도 보면 [그림 895]. 이게 아래쪽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정작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응기둥을 보면 주두 위에서 한번 끊겼다가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목적은 전혀 갖지 않는단 얘기에요.

순전히 장식품으로 덧붙인 것이고. 주두 아래쪽 코어기둥 쪽에 보면 대응기둥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이유는 아케이드의 아키볼트의 겹이 여러 겹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겹을 일일이 하나씩 받치기 위해서.

표준형에서는 아케이드의 아키볼트를 한 겹으로 보고, 그 아키볼트 전체를 담당하는 대응기둥을 하나로 두는데, 여기는 그것이 양 쪽에 두 개씩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지 바닥수가. 그러니까 더 자잘해지면서 장식화 경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링컨에 나타난 장식화 경향이고. 이런 것은 이후에 장식 양식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솔즈베리는 프랑스 고딕에 비하면 여전히 장식적이지만, 영국 내에서 다른 예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프랑스의 구조 합리주의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건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897] 천장을 보면 대륙의 4분 볼트의 표준형 이상으로 갈래를 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키볼트는 여전히 겹 수가 많지만 [그림 898]이나 [그림899]를 보면, 아키볼트는 겹수가 많지만 더 자잘하게 나누어지면서 [그림 895]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 895]는 굵은 아키볼트와 가는 아키볼트가 교대로 나오면서 굵은 아키볼트가 여러 개가 되면서, 그것에 달라붙은 대응 기둥도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림 898]을 보면, 단수는 많아졌지만 이것이 매우 자잘해지면서 각각에 대하여 대응기둥이 붙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러면서 아키볼트 전체를 대응 기둥 하나가 받는 형식이 되면서 그것이 [그림 899]처럼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응기둥이 양 쪽에서 하나씩, 전체로 보면 두 개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그림 899]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앞에서 보았던 샤르트르에 나타났던 필리에 캉토네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솔즈베리, [그림 900]. 이것을 보면 삼위일체 예배당이죠? 여기 보면 볼트 개수가 늘어나긴 하였지만 어느 선 이상은 넘지 않으면서 우산형 볼트가 되었고. 우산형 볼트는 구조 방식이 잘 드러난 그런 볼트 처리인데.

그래서 링컨과 솔즈베리를 비교해 주는 그림이 [그림 901과 902]에요. [그림 901]은 링컨 성당의 리브 단면도. A를 단면으로 잘라 놓은 것이 B인데, 거기 보면 끄트머리에 작은 리브 7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그런데 [그림 902]의 솔즈베리를 보면 굵은 것 두 개나 세 개.

그러니까 [그림901]의 B는 리브가 자잘해지면서 장식화 경향을 보여주는 링컨의 모습이고, [그림 902]의 솔즈베리는 대륙의 구조합리주의의 모습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예이지요. 이것을 괜히 갖다놓은 게 아니라 도면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웰즈와 웨스트민스터에 오면 이 두 경향이 혼용이 된다. 550페이지를 보면, 웰스 성당은 링컨과 솔즈베리의 특징이 혼합된 상태. 여기도 네이브, 성가대석, 서쪽 파사드. 이것이 초기 영국 양식인데요.

이스트엔드는, 평면을 먼저 보면, 그래서 네이브나 이쪽까지는 상당히 정형화된 대륙, [그림 903] 평면 보면, 네이브까지는 대륙의 표준형이 잘 지켜지는데 성가대 석까지도 괜찮은데 , 마지막 이스트엔드를 보면 대륙의 방사형 예배당과 영국의 축형 혹은 제형 예배당, 4각형 예배당 이런 두 가지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요.

실내와 파사드 역시 솔즈베리의 구조합리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서 링컨식의 선형 어휘를 첨가. 네이브 월을 중심으로 선형어휘가 늘어난 것은 장식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그림906] 같은 것을 보면 많이 장식어휘를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림905]의 천장을 보아도 벽지개념의 꽃 장식을 넣긴 했지만 리브 개수는 늘리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솔즈베리의 리브 개수를 늘리지 않은 그 특징을 지키면서도 강한 장식 욕망을 꽃 장식으로써 겨우 달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905]를 보면, 가위처럼 생겼어요. 특히 꽃나무 자르는 가위.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가위 아치scissor arch, 혹은 남자들 자켓 보면 가운데 단추 잠그면 벌어지는 모양이라고 해서 단추 아치 button arch라고 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래서 이 부재는 장식어휘로 볼 수도 있고 구조 부재로 볼 수도 있어요. 구조 부재로 보면 굉장히 굵은 한 단의 아치가 공간을 구획하면서 천장을 받치기 때문에 구조 합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장식 어휘로 보게 되면, 중간에 조그마한 구멍 뚫려있고 이런 것이 별 의미 없이 장식어휘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을 보면, 구조 합리주의와 장식성 사이의 적절한 혼합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웨스터민스터 성당도 마찬가지로 웰스 성당과 비슷해요. 평면을 보면 네이브나 트랜셉트까지는 대륙의 엄격한 표준 구성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모듈도 반듯하고. 그런데 오른쪽 끝을 보면 변형이 심해져요. 대륙하고 다른 영국만의 이스트 엔드 구성이 혼합되고 있고요.

▲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영국 중세 건축의 완성

553페이지 보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나타난 영국적 정체성은 대륙의 동시대적 보편성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영국적인 것만으로는 나갈 수 없는, 요즘 FTA를 가지고 벌어지는 논란이 그것이죠 결국. 세계 보편 질서를 좇을 것인가, 그런데 이 보편 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한국의 이제껏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경제 질서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건축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FTA체결 되고 나면 건축은 직격탄을 받게 되는 분야 중 하나예요. 워낙 분야, 시장이 작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소고기와 같이 예민하거나 시장이 넓은 큰 것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지만 건축도 굉장히 직격탄을 받는 분야중 하나예요. FTA가 체결 되고 난 후라면,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잘 생각을 해보아야해.

그런 문제가 유럽 내에서도 꾸준히 있어왔던 얘기에요. 여기도 보면 완전히 영국식만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국제적인 보편질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영국적의 정체성을 혼합해내려는 이런 고민들이 완성점에 달한 건축물로 볼 수 있어요.

554페이지 보면, 평면에서 이러한 양면성이 드러나는 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 디테일과 구조처리에서. 두 개의 랜싯과 하나의 오쿨루스로 창을 분할한 점, 레요낭 양식의 트레이서리로 분할할 점 등등 이런 것들은 대륙의 방식이었고요.

반면에 실내와 외관을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장식, 공예적 처리. 이런 것은 영국의 장식 전통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 고딕 건축의 완성이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고요.

결국 영국 고딕 건축이 태생부터 안고 있었던 쌍 개념적 상황. 이미 가장 발달한 동시대 양식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딕을 어떻게 받아들여 영국적으로 지역 특성을 가미하여 재해석 해낼 것인가하는 영국고딕의 고민이 여기에서 비로소 잘 완성된 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웰스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같이 나타났는데 웨스트민스터가 더 중요한 건물로 보통 얘기가 되요 .그것은 이 건물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죠. 웰스 성당은 성당일 뿐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당임과 동시에 런던의 중심, 영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장 대표적 건물로 생각하는 그러한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정치적 배경들은 555페이지 아래부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헨리왕의 야심,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참회왕 에드워드의 무덤을 증축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영국의 어떤 유명한 왕들, 왕실과 엮여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느 건물과 다르단 얘기에요. 영국식 개념의 성 권력과 속 권력이 합쳐진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트에서 [그림 917]처럼 장식어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레요낭 양식과 비슷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요낭 양식이 프랑스에서 자생적으로 생겨 영국에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면 영국의 이 장식양식이 변형되면서 프랑스로 영향이 끼쳤느냐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자의 주장, 영국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건물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민족적 자긍심을 굉장히 높여 줄 수 있는 건물이지요. 영국 건축은 항상 대륙의 완성된 양식을 수입하면서 뒤쫓아가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오히려 대륙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앞에 로마네스크 드럼 성당에서 보았던 그런 리브를 둘러싼 논쟁도 영국의 콤플렉스가 발동한 논쟁인데. 드럼은 영국이 생떼를 쓰는 쪽에 가까운데 웨스트민스터는 아직 몰라. 팽팽해. 그래서 웨스터민스터는 영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았을 때 고딕 시대 영국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건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 장식 양식 : 레요낭 양식, 기하 장식, 곡선 장식

그 다음에, 장식 양식. 장식 양식은 대륙에서의 레요낭 양식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겹치면서 같은 페이스로 나아갔다는 얘기에요. 레요낭 양식이 트레이서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글거리는 듯한 장식어휘를 만들었다면, 영국의 장식 양식은 리브의 선형성을 이용한 기하장식이 두드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대의 레요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더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길 해보면 559페이지 아래, 켄터베리-링컨과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선례를 모델로 삼아서 대륙의 레요낭 양식과 동시대적 보편성을 공유하면서 '트레이서리-리브-조각물'이 혼합된 강한 선형 장식 경향을 보이는 양식. 이것이 영국의 장식 양식이고. 이 시기가 영국 중세 기독교가 제일 융성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영국 고딕 건축은 시작부터 장식 경향을 자국만의 특징으로 가지면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성기는 곧 장식 경향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 보통 장식 경향이 왕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성한 시기는 바람직한 시기로는 보지 않는 것이 건축사의 통례인데, 그렇잖아 건축이 장식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영국 고딕만은 좀 특이하여 장식 경향이 전성기에 달한 시기가 영국 고딕 전체의 전성기이도 하고, 영국의 중세 기독교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와도 겹쳐요. 그래서 리브를 이용한 화려한 천장 장식의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 [그림924]이고요. 이것은 독일 고딕까지 같이 더해서 리브를 이용한 볼트 장식의 예들이고.

영국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면, 브리스톨 성당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한 티어서론을 더 장식적으로 활용하여 패턴까지 만들어낸 경향으로 볼 수 있죠.

이 장식 양식을 또다시 둘로 나누면요. 하나는 기하학적 경향, 다른 하나는 곡선 경향. 곡선 경향에 중심을 둘 경우의 장식 양식은 곡선 양식이라는, 커뷸리니어 양식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하학적 경향은 [그림 921, 925]이런 것들이고요. 트레이서리를 이용하여 아치 분할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분할하는 경향을 들 수 있고. 곡선경향은 [그림 926, 928]이런 것들, 오지 아치ogee arch라고 하는데.

볼록, 오목이 한 번씩 교대로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아치를 오지 아치라고 해요. 오지 아치는 앞에서 한 번 나왔었어. 플랑보아양 할 때, [그림 847] 이런 것이 오지 아치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나뭇잎형 아치, 에스자 형 아치,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장식 경향의 아치들. 이런 예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경향을 대표하는 건물이 초기 영국 양식의 후반부의 솔즈베리 성당의 챕터하우스, 그다음 곡선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이 링컨 성당의 엔젤 성가대석.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솔즈베리는 구조 합리주의 경향을 지킨 것으로 보아서 기하학적 경향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성격을 좀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컨은 장식화 경향, 초기 영국 내에서도 장식화 경향을 대표한 것으로 보아서는 곡선양식은 상당히 장식화된 경향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솔즈베리 성당의 챕터하우스가 [그림 929]에 나와 있고요, 링컨의 엔절 성가대석이 [그림 930]에 나와 있어요.

▲ 요크 성당 대 엑서터 성당

이 두 가지 경향이 발전. 둘 다 초기 영국 양식의 후반부 건물이고요. 이런 것들이 장식 양식으로 오면서 요크 성당 대 엑서터 성당의 두 경향으로 갈리게 돼요. 요크 성당은 계속해서 기하학, 기하 양식 기하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초기 영국의 절제 경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트레이서리를 이용한 레요낭 양식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대표적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요크 성당의 평면이 [그림 934]에 나와 있고 [그림935]는 네이브 전경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280년경을 넘기면서 영국 서남부 지방의 요크 성당과 대비되는, 곡선 경향이 두드러지는 링컨의 선례를 잇는, 영국의 장식주의를 잇는 예들이 몇 개 죽 등장하게 돼요. 엑서터가 대표적인 경우지요.

엑서터는 [그림 937 938 939] 이런 것을 보면, 첫 눈에 링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그림 937]을 [그림 892]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조림 가닥이 더 많아진 것이야. 근육 다발이나 부채살이 7개이던 것이 여기서는 11개로 늘어난 것이야.

그 다음 리브 자체도 굵어졌고 등등등. 그다음에 아케이드 층까지 확대 되면서 아키볼트가 [그림939]를 보면 촘촘해지고, [그림937]의 천장을 찍은 것이 [그림938]이고요. 그 다음에 리브끼리 만나는 결절점마다 꽃송이를 달았어요. 상당히 장식 욕망이 컸던 건물이고.

그 다음 다시 오지 아치가 나와요. 곡면이 볼록 오목의 교대. 그 다음에 이제 리언이라는 부재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티어서런이 리언이라는 부재로 한번 더 발전하게 돼요. [그림 940]보면 리언을 보여주는 예에요.

이것이 계속 갔으면 티어서런인데, 이게 여기서 끊겨서 조각이 나고. 여기에 더해진 부재가 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림 941]에서 보면, 거기 일단 568페이지에 보면 주 리브는 제 1,2.3 리브, 리언은 제 4리브, 여기 티어서런이라는 것 자체가 제 3의 리브라는 소리에요. 초기 영국에서는 제 3의 리브가 장식부재가 되었고.

그러다가 장식 양식에 오게 되면, 제 3의 리브까지도 주 리브가 되어, 즉 이것은 부가 리브인 것이죠? 초기 영국에서는 이 제 3의 리브인 티어서런이 장식을 만들어내는 부가 리브였는데. 장식 양식에 오게 되면, 이것까지도 주 리브가 되고, 제 4의 장식용 부가 리브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것을 리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차 부재, 종방향 횡방향의 박스를 짜는 것. 대각선 리브가 2차 부재. 그 다음 티어서런이 이것, 3차 부재.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4차부재로서 리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저기서는 이 두 개가 없이 티어서런이 여기까지 가서 만나고, 이 뒷부분이 지워져. 그러던 것이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져 나가면서 이 두 부재가 더 생겨난 것이죠. 리언으로.

다시말해 이것만으로 이어지면 이게 티어서런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티어서런이 끊기면서 이쪽으로 하나씩 더 생긴 거지. 이게 리언이 되면서 제 4리브, 장식용 리브가 된 것이고. 이것으로 패턴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장식 양식에 리브를 이용한 장식 경향들을 설명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크와 엑서터가 서로 상반되는, 장식 양식 내에서 상반되는 경향인데 이렇게 상반되는 두 경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향으로 장식 양식이 시작되었다가 엑서터의 경향을 이어받은 곡선 양식이 장식 경향의 주류를 이루면서 장식 양식의 주류를 이루면서 영국 고딕 건축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의 문을 연 건물이, 크리스털 [그림 945]이죠. 크리스털에 나타난 장식 경향들 죽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웰스 엘리, 이런 데의 장식경향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명한 것이 엘리 성당의 레이디 채플, 여신도용 예배당. 그 천장이 영국의 장식을 보여주는 [그림 959]에요.

[그림 959]가 [그림958]에서 보면 우물천장 깊숙한 것, 제일 속에 있는 장식이고. 959를 포함하여 더 큰 장식의 모양은 958처럼 팔각형. 근육 다발이 팔각형, 여덟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형상이죠. 아주 장식적인 그런 경향이고. 이것의 골조는 [그림960] 처럼 나무로 짰어요. 그래서 브리스톨, 윌스, 엘리의 장식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1강 영국 고딕

2교시 영국 고딕의 수직 양식과 독일 고딕의 형성

▲ 수직 양식

그 다음에 수직 양식. 장식양식의 장식화 경향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절제 경향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래서 절제의 방향은 네 방향으로 나타났다.

첫째 리브와 트레이서리 장식 어휘가 자잘해져요. 그리고 장식 문양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된다. 특히 [그림 963]. 이런 식으로 가닥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그림940]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패턴화 되기 힘들어.

마름모도 끼어 있고 좌우 크기도 다르고. 선의 개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림963]을 보면, 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문양들도 상당히 패턴화된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규칙성이 극에 달한 게 팬 볼트, 말 그대로 부채처럼 뻗어나가는 [그림 965, 966]. 이런 팬 볼트가 수직양식의 대표적인 리브 볼트 형식 중의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식이 2차 요소로 격하돼요. 영국은 어차피 장식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전성기인 장식 양식에서는 리브가 상당부분 건물의 골격까지도 담당을 하는, 그래서 그것의 구조적 역할은 프랑스의 구조 합리주의에서만큼 크지는 않았어도 건물의 3차원 골격을 담당하는 주요 부재였는데요.

수직 양식에 오게 되면 장식이 2차 요소로 단순 부가물로 격하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장식이 2차원 면 요소가 돼요. 그래서 마치 밖에서 스크린 패널을 만들어 와서 갖다 붙인 것처럼 변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장식 양식 시대까지는 장식 부재들이 현장에서 장인들이 돌을 쪼으고 이러면서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구조 부재와 한 몸이 되어서 장식 부재가 3차원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이 수직 양식에 오게 되면 [그림968]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큰 2차원 스크린 면을 마치 다른데서 만들어 와서 가져다 끼운 것처럼 변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때 오게 되면 패널이 공간을 담당하는 주요 부재로 등장하게 되요.

이러한 패널은 스크린의 한 종류. 이게 어떻게 보면 대륙에서는 레요낭 양식이 플랑부아양 양식으로 가면서 네이브 월이 2단 구성으로 변해가는, 그것에 해당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천측창과 트리포리엄이 붙으면서 그것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는 3차원 공간 부재에서 단순한 유리창인 2차원적 공간이 되는 것의 영국에서의 현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식이 힘을 잃고 자잘해져가. [그림 968]의 글로스터 성당. 이것이 [그림 963]에 해당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뒤로 가보면 [그림 976, 977].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면, 나이가 들면 사람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어져. 그러다 빠지지. 건축을 생명체에 비유해 보자면 이래. 이것은 장식이 자잘해져가는.

그래서 보통은 장식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후기 양식인데, 영국은 처음부터 장식이 고딕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장식이 왕성해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전성기에 해당이 되고, 장식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후기 양식인 이 수직 양식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축 내부적으로 보면 장식화 경향에 대한 반성, 절제였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538페이지에 당시 영국의 건설 산업이 처했던 상황의 산물. 13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건설 산업은 쇠퇴기. 1348-49년 사이에 영국을 휩쓸었던 흑사병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파탄나면서 건설 경기가 파탄을 맞았단 얘기죠.

흑사병으로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많이 사망을 해요. 장식 양식을 이끌었던 마스터급, 마에스트로급 장인들도 여럿 희생이 되면서 장인들의 기술력과 공예 솜씨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장식 내에서의 쇠퇴기. 장식에도 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힘을 잃고 자잘한 선으로 나뉘면서 수직선을 많이 이용한 양식이라고 하여 수직 양식이라고 해요.

▲ 글로스터 성당, 윈체스터 성당, 캔터베리 성당

그래서 글로스터 성당의 트랜셉트와 성가대석 증축 부분이 수직양식의 시작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고요. [그림 971]이 성가대석이죠. 성가대석 천장이고, 그리고 네이브 월 중의 오른쪽 부분을 크게 확대한 사진이 [그림 973]이에요. 잘 보면 그게 같아. [그림 973]에 잘린 것이 [그림971]. 그리고 [그림973]을 입면 전개도면으로 그려놓은 것이 [그림974]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한 수직 패널. 네이브 월의 3단 구성 이런 것들이 수직 패널화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패널의 사용은 표준화를 의미했다. 뭐 격자 문양의 바탕 위에 트레이서리의 비례가 조절되고 등. 여기 584페이지에 수직 패널 사용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패널의 사용은 표준화, 표준화는 규칙화. 그래서 개개 장식이 갖는 개별적 생명력이 상실되면서, 이런 경우는 상당부분 장인들이, 솜씨 좋은 장인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해요. 현장에서 솜씨 좋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중앙에서 표준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천장 얘기가 나와요. 리언을 이용한 그물 문양 이런 것들이 새겨지게 되면서 장식 양식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장식 양식의 마무리는 캔터베리. 캔터베리는 영국 고딕 건축의 문을 연 건물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은 건물이기도 해. 캔터베리에서 특히 유명한 부분이 [그림 985]. 크로싱 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분의 천장 장식. 그래서 팬 볼트를 조각을 내어서 네 모서리, 그다음 네 변에 각각 넣었죠. 네 모서리에 팬 볼트의 작은 조각 1/4조각, 그리고 네 변에 큰 팬 볼트에 반원 조각. 이런 것들을 더해서 다시 중앙에 작은 크로싱을 만들고 다시 문양을 넣어서 아주 화려한 장식 문양의 대표적 예이지요.

▲ 왕실 예배당과 영국 고딕의 종말

그 다음 영국 고딕의 마지막 단계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 이때가 되면 대륙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영국에서도 절대왕정이 꿈틀대기 시작해. 쉽게 얘기해 세속 권력이 기독교 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그래서 왕실에서 지은, 왕실 예배당이 건축 양식을 주도하게 돼요. 그 전에는 대형 성당이나 수도원들이 주도했는데.

그래서 왕실 예배당이 수직 양식의 제일 마지막 단계, 영국 고딕의 끝부분을 왕실 예배당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케임브리지에 있는 킹스칼리지 예배당이에요. 여기 채플이 팬볼트 천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림 987]이 그 팬볼트 천장을 그린 그림에요. 이렇게 해서 영국 고딕을 끝냈고.

▲ 독일 고딕의 형성

독일 고딕은, 어렵게 시작이 됐다고 쓰여 있어. 독일은 로마 교황청, 프랑스의 로마네스크와 대립하는 전통이 강했단 얘기에요. 이것이 로마네스크 때부터 이랬고요. 그리고 특히 후기 로마네스크가 제일 융성했던 지역이 독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프랑스를 보면 고딕이 형성돼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고딕과 충돌이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 신성로마제국이 고딕 시기로 들어오면서 로마 교황청과 많이 싸우다가 쇠퇴했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고. 그래서 로마네스크 때 오토왕조처럼, 프랑스 고딕건축의 교황 군주제라든가 중앙 군주와 같은, 세속적 중앙정부 혹은 기도교 중앙정부와 같은 중앙의 리더십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중앙의 큰 힘이 있어야 대형 성당 축조와 같은 일을 경제력을 동원하여 시행할 텐데, 그것을 지원할만한 정치적 주체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독일은 고딕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국제적 흐름은 좇아야겠고. 그래서 상당히 뒤늦게 프랑스에서 완성된 국제주의양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 특징은, 595페이지 다발기둥의 정리와 웅장한 공간의 창출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닥이 잡혔단 얘기에요.

독일 고딕은 서쪽과 동쪽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로마네스크 때도 라임란트 지역, 서쪽이 대체적으로 로마네스크 때 라임란트 지역이고. 프랑스와 접한. 동쪽은 로마네스크 때 작센 지역이었는데. 고딕 때는 여러 가지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인접한 서쪽, 라임란트 지역에서는 프랑스의 표준화된 고딕 양식을 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입하는 선발 지역이 되고요. 나중에야 동독 서독으로 나뉘기도 하고 통일된 뒤에도 옛 동독 지역에 있는, 주로 지금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이런 도시들인데 옛날엔 갈 수 없었던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서쪽에 있는 도시들, 쾰른이니 슈투트가르트와 많이 달라. 일단 사람들이 괜히 사나워. 영어 쓰면 때리려고 해. 그만큼 자국의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아무래도 서유럽과 접경지역은 개방적이기도 하고 국제 흐름을 쫓으려하는데, 좀 떨어진 동쪽지역은 독일의 지역색을 지키려는 이런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기, 정착기, 부화기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가 초기 성기 후기로 나눴고 영국은 초기 장식 수직으로 나뉘었는데. 프랑스는 완성도로 따진 것이고 영국은 내용으로 따진 것이고. 붙여진 명칭을 보면. 독일은 이도저도 아니지. 뭐 전파되는 정도에 따라서 명칭들이 붙었단 얘기죠.

도입기는 1200-13세기 중반까지. 정착기는 13세기 중반에서 1300년. 14세기가 시작하는,. 그 다음에 분화기는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도입기는 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독일의 로마네스크 전통, 프랑스 고딕의 새 어휘 그다음에 독일 전통에 맞게 새롭게 해석된 고딕 어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쾰른이나 마그데부르크와 같은 도시로. 597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정착기는 독일 고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 이때에는 트리어를 중심으로 프랑스 고딕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이런 때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여전히 프랑스와의 영향 관계.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먼저 완성된 국제주의 양식을 얼마만큼 쫓아가고 얼마만큼 변형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것과 똑같고요.

프랑스 고딕을 직접 모방한 경향, 이것은 쾰른 대성당 그다음 슈트라스부르크의 노트르담 성당이 이런 것들이 프랑스 고딕 양식을 직접 모방한 경향에 해당이 돼요. 이 두 도시는 프랑스와 가장 인접한 대 도시들 중 하나이고. 슈트라스부르크는 국경에 있어서 전쟁결과에 따라서 소속국가가 바뀌는 도시였어요. 쾰른은 조금 안쪽에 있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고요.

이렇게 프랑스와 인접한 도시에서는 프랑스 고딕을 직접 모방을 했고 반면에 독일의 전통을 지키려는 경향들도 이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트리어의 성모마리아 교회와 마르부르크의 엘리사벳 교회는 후자에 속한 예이고요.

분화기는 14,15세기. 그래서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요. 뤼베크, 뉘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울름, 뮌헨 등등. 그다음에 프랑스의 표준 양식에 더하여 홀 교회 중앙 집중형 교회와 같이 독일만의 고딕 양식도 나타나고.

팔러 가문으로 대표되는 장인 그룹이 등장하면서 고딕 건축이 독일의 산업 체계로 자리를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잡게 되요. 독일이 유독 장인 전통이 강하게 되어 나중에 바로크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 고딕 때 팔러 패밀리에서 시작이 된단 얘기죠.

15세기는 마지막 쇠퇴기로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불,독 세 나라에서는 15세기까지도 고딕이 명맥을 유지하죠. 15세기면 이태리에서는 성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까지도 이 세 나라에서는 고딕 양식이 지어지고 있었단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